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CES 2009에 참가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IFA 2008에 이어 전시장 입구에 117대의 플랫패널 TV를 이용한 초대형 '크리스털 기념비'를 설치했다. 사진은 6일(현지시각) 홍보 도우미들이 '크리스털 기념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 경영조직 재정비 나섰다

사장단협의회 산하 상설 인사위 설치

인사·조직 등 위기 극복 체제로 개편

삼성이 7일 사장단협의회 산하 상설기구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을 시작으로 경영조직 재정비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삼성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경영진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짓고, 임원급 인사와 조직개편, 계열사별 1분기 전략회의를 2월 안에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나, 이른바 '삼성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이 인사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세계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경영조직 정비를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인식과 함께 인사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이날 오전 사장단협의회에서 "글로벌 경제불황이 외환위기 시절보다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조만간 인사를 마무리하고 경영진과 경영조직을 전면 재정비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삼성은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에 인사위를 둔 적이 있으나, 이건희 전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런 기구를 둔 적이 없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내용보다는 인사의 시기와 방향에 대한 경영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고, 사장단 인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 정도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 사장단 인사는 늦어도 1월중에 내정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수빈 회장이 인사위 설치를 제안한 만큼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난리통인데 전열을 빨리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1월중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 희망을 잡아라

〈하〉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

"투자 자제… 하반기 이후를 노려라"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침체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상가나 개발예정지 같은 '틈새시장'은 노려볼만하다.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정길환씨〉 〈정여회씨〉 〈정상철씨〉 〈안동언씨〉

여윳돈 있으면 '알짜 부동산' 저가매수 기회

지방 현실에 알맞는 규제 완화 정책 나와야

- 올해 광주·전남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정길환 부동산114 호남지사장=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움직임은 더디게나마 광주·전남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다.

▲정여회 스피드뱅크 호남지사장=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이 광주·전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정상철 호남대 사회복지행정대학 부동산학과 강사=시장 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편적인 대책보단 세제 및 대출규제 등이 지방의 현실에 맞도록 대폭 개선돼야 한다.

▲정여회=올 상반기에는 금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장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에 대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을 동일시한 정부 정책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는가.

-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 태도는.

▲정상철=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싶다. 최근 수요 급감으로 다양한 부동산 상품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만큼 '알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다.

▲안동언 광주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표=위기에도 유망 상품은 반드시 있다. 단지 내 상가와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의 건물, '알짜' 주택·상가 경매 등 우량물건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 올해 광주·전남의 유망 부동산 투자처는.

▲안동언=고시텔이나 원룸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 고시텔의 경우 취업난이나 전세난이 커질수록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돈 되는' 재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광주는 수완지구와 첨단2지구, 선운지구 등의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상철=개발 예정지 주변의 토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광주는 어등산 인근이나 광산구 삼거동 일대의 국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이 유망 투자처다. 전남은 여수 엑스포,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 인근의 급매물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다.

- 지역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여회=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광주는 진월지구와 효천역세권, 수완지구 등이 투자처로 꼽히지만 당장 고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길환=정부의 정책 변화나 부동산 상품별 특색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원룸사업은 2, 3년 뒤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원룸과의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 경매 물건도 미래 가치가 불투명한 것이 많은 만큼 현재 가격에 대한 평가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담보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것도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리=최경호기자 choice@

건설·조선사 이달 중 운명 갈린다

금융당국, 111곳 심사 … 23일까지 퇴출 통보

이달 안에 1차로 중대형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 111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아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92개 건설사와 19개 중소 조선사를 우선 평가해 오는 23일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인 300여 개 건설사 중에서는 시공능력 상위 기업이, 50여 개 조선사 중에서는 경영난을 겪는 곳이 이번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은행들은 이들 회사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부실기업(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후에 나머지 210여 개 건설사와 30여 개 조선사로 평가를 확대해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TF가 마련한 평가 기준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다르고 평가 자료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구조조정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조선사는 선박 수주를 위해 환급보증서(RG)를 발급받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도 채권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작년 말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6~7곳

올 연봉 깎거나 동결

불황의 여파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7곳은 올해 직원들의 연봉을 작년보다 깎거나 동결할 전망이다.

7일 온라인 채용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연봉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432개를 대상으로 '2009년도 직원 연봉협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원 연봉을 동결하겠다"는 대답이 60.9%(263개)로 가장 많았다. 4.6%(20개)는 아예 삭감 계획을 밝혔다.

반면 34.5%, 149개 업체는 작년보다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답했다.

임금을 깎겠다는 20개 업체가 예상하는 평균 삭감 폭은 5.6%, 올리겠다는 149개 업체의 평균 인상 폭은 5.7%로 각각 집계됐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올해 직원의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으로 경영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증권업계 금리 0.5%P 인하 예상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금리의 인하폭이 0.50%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0.25%포인트를 낮추면 시장에 실망감을 주고 0.75%포인트 이상 내리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카드가 사라진다는 시중의 대체적인 분석을 증권계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외국계를 포함해 채권 보유 및 운용관련 110개 기관,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3%가 1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금리 인하폭으로는 0.50%포인트가 유력하게 예상됐다.

신영증권은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금통위에서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 단행을 예상했다.

동양종금증권 조병현 연구원도 "시장은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상황과 아직은 여유가 있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고려할 때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혜주로 증권과 건설업종 등을 꼽는다. /연합뉴스